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롱 데일’ 경제학

‘롱 데일(긴 꼬리)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있다. 시장에 상품을 내다 팔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는 제품을 기획해야 한다는 상식과 달리,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기획이 시청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방송 채널이 늘어서 방송 시장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 되었다면, 이런 특색 없는 프로그램은 외면당하기 쉽다.

이때 노인, 주부, 청소년과 같은 특정 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최소한의 시청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종합편성채널(중편)이 본격적인 주제를 다루는 이유도 바로 이 롱 데일 전략의 하나인 셈이다.

한데 문제는 이런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전략은 지나친 편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중편에서 무속인을 등장시켜 대통령과 김정일의 공합을 본다든지, 혹은 특정 정치인에 대해 내리

막길을 걷는 운세라는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이 좋은 사례다.

이 경우 방송의 목적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 상품 판매와 달리 방송은 공공자산이다. 제한된 전파 자원을 특정 방송사가 할당받아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모두의 것을 사유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방송을 공적 영역으로 취급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이를 망각할 경우 국가는 당연히 전파 사용 권리를 회수해야 한다. 정작도 마찬가지다. 정치란 고도의 공적 영역이다. 정치는 국가의 기본 질서와 운영에 개입하며, 정치인은 그 개인의 주체다. 따라서 정치인은 늘 언사와 태도에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정치인이 특정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그는 해당 계층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일차적 역할뿐만 아니라 소속 세대의 가치와 이념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동시에 가지며, 아울러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책임까지 주어진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토텔 경제학을 원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당의 지지자 중에는 소수의 원리주의자가 항상 존재한다. 정강이나 이념에 강력한 색깔을 반영하지 원하는 지지자들이다.

이들은 대개 정당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이들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한데 이들만을 자신들의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치인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득표전에 승산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 긴 꼬리를 겨냥한 누군가가 강경한 구호만을 내세운다면 그는 소수의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지도부에 입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한다.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다. 정당이 집권하는 데는 긴 꼬리가 아닌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집권에는 토텔 경제학이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국민이 수권정

당임을 인정하고 정권을 맡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강 정책과 아울러 그 소속 구성원의 태도와 자질을 눈여겨 보게 된다.

하지만, 그 정당 지도부의 일일이 언론의 시선을 끌기 위해 튀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그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동일시된다.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 긴 꼬리를 붙들고 공천이나 당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해당 정당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셈이다.

‘입안에 도끼’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쓰레기통 같은 정치판이라 해도 정치역시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의 입에서 쫓은 고사하고 도끼만 날아다니는 모습에 국민은 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토텔 경제학은 소수를 향해 특정 물건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알리고자 하는데 유용한 개념이지, 방송이나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절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인 것이다.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종교칼럼

신부로 살만 한가요?



김영철 광주 남동5·18기념성당 주임신부

“신부로 살만 한가요?” 어느 지인의 질문입니다. “살만합니다.” 세상이아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존중과 존경도 따라옵니다.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제때에 먹을 양식이 있고 매달 월급도 받습니다. 자신의 취미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옛 선배 신부들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달같이 먹고 싶어서 신학교(가톨릭대학교)에 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선교사로 온 외국인 신부들이 신자 가정을 방문하면 신자들은 신부의 방문이 영광이라며 썸뽕에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마련하고 닭 잡아서 한 상 가득 차려냅니다. 아이들은 밥상 발치에서 신부님이 행어나 남겨주실까

몹을 빼고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 다음에 간 성당에서 ‘신부님 프고 힘든 그때조차 신부들은 그렇게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부란 이름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십대 중반에 신학교(광주가톨릭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생활은 참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철학, 신학 등등. 공부하는 무척 힘들었지만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참 봉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부로서 멋지게 삶을 펼쳐보리라 다짐했습니다. 6년(지금은 7년)의 신학교를 마치고 마침내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쁨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께듯이 ‘신부님, 신부님’하고 인사합니다. 자리에 앉아도 미리 정해진 좋은(?) 자리에 모십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한번은 보좌(신자가 많은 성당에는 주임신부, 보좌신부가 있음)를 마치고 바닷가에 있는 성당에 첫 주임이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인지라 낙지 잡고 굴 따는 분들이 있어서 잡기만 하면 가져오니 입에서 낙지 냄새와 굴 냄새가 떠나질 않

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 성당에서 ‘신부님 뽕 좋아하세요?’하고 물기에 ‘닭고기 좋아합니다’라고 했더니 가정방문 때마다 살고 튀기고, 어떤 날은 닭고기로 두끼를 먹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불어친 별명이 ‘김닭’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의 정입니다. 황송하게도 지금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부 노릇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세상이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도 살만하지 않습니다. 속된말로 뽕가 2% 부족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조건이 채워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흔히 ‘신부도 사람이야’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열살바도르의 순교자 로메로 대주교도 감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 맞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육신을 취한, 물질로 보면 한 순간 시들어가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존재인 인간은 또한 강하고 품위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늘 뽕가에 갈증을 느끼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에 선생님은 화장

실도 안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을 이 세상의 잣대로는 잴 수 없는, 품위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주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적 가난은 사람의 존재를 땅에 묶어둡니다. 하늘의 존재가 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지닌 품위를 지키도록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오직 이기적인 탐욕과 자신의 출세와 영화를 바라면서 금수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너무 애처로운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조차 부리지 못한 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무관심했던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물든 이 세상을 향한 예언자의 목소리에 적극 동참하지 못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 이제 처음 질문에 다시 답을 해야겠습니다.

“신부로 살만 한가요?” “부끄럽게 살만 합니다.”

社說

국회의원 수 배분 지역 대표성이 먼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고질적인 영호남 일당 독식구조를 완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하지만 인구가 많고 의석을 배분할 경우 호남은 상대적으로 의원수가 적어져 불이익을 받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선관위 의견의 골자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과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지만 일정 득표를 하면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 때 부산에서 51.3%(정당투표율) 지지를 받았지만 전체의 89%인 16개 의석을 쟁기고 민주통합당은 31.8%를 받고도 단 2석만 가져간 페단을 해소하는 구조다.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완화될지 미수지만 적어도 한 지역을 어느 당이

씩쓸이하는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도 다소 쉬워질 것이다.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과 같은 의견이라고 반기는 반면 여당은 야당에 유리한 안이라며 못마땅한 반응이다. 문제는 인구가 많고 권역별 의원수를 조정하면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다. 선관위 의견대로라면 호남·제주는 고작 1석 늘어난 반면 인천·경기·강원은 25석, 영남과 서울은 각 11석, 충청권은 6석이 늘어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구보다 더 중요한 지역 대표성이 상실된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아예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다수의 국민은 현행 선거법에 부정적이다. 국회는 선관위의 의견을 기초로 한 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다만 국민이 원하는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원 수 배분 원칙에 지역 대표성을 제1의 가치로 뒤야 한다.

소방관 희생 강요하는 불량 방화복사태

광주와 전남도내 일선 소방서에서 불량 방화복을 회수하는데 소방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불량 방화복 사건이 타진 뒤 여러차례 해당 방화복 찾기에 나섰지만 누가 입고 있는지, 어디에 보관 중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불량 방화복을 대체할 여벌 방화복도 없어 화재 발생시 목숨을 걸고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방화복 제작업체가 납품한 방화복 1만 9300여 벌 중 5300여 벌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RI)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된 것으로 파악, ‘착용 보류’를 지시했다고 한다. 광주 시내 소방서에 지급된 불량 방화복은 984벌로 전체 방화복(2156벌)의 45.6%에 이른다.

이후 국민안전처가 회수 지시를 내리자 불량 방화복을 찾는데 혼란을 겪고, 여벌 방화복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소방관들은 처리할 일도 밀려있는데 갑작스

런 불량 방화복 사건으로 다른 업무는 손도 못 대고 있다며 호소연하고 있다.

현장 대원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벌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신규 공급도 늦어지면서 동료 장비를 빌려 입고 출동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퇴출’ 방화복을 대체할 신규 방화복 공급 시기도 60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내구연한 3년이 지난 노후 방화복을 착용한 채 화재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소방서와 소방관에게 불만을 뒤집어 주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방화복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비다. 더욱이 일선 소방서엔 고품질 방화복과 방수복 등 안전장비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먼저 신규 방화복 공급을 서두르고 소방 및 안전장비 확충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소방관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無等鼓

‘화차’의 변형주 감독이 제작한 다큐 ‘낮은 목소리’ 3부작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작품이다. “소마냥 일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다시 태어나면 (아이) 한번 낳아 키워보고 싶다.”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지난해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아픈 과거의 기억들을 치유해가며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 속에는 짓밟힌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평화의 소녀상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는 한복을 차려입은 단발머리 소녀상이 있다. 의자에 앉은 소녀는 맨발이다. 어깨 위에는 작은 새가 앉아 있고 그녀 곁엔 빈의자가 놓여 있다. 새는 자유와 평화를, 맨발은 소녀의 험난한 삶과 여정을 상징한다. 빈의자는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의자이자, 남아있는 이들이 앉아 공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겨울이면 목도리를 둘러주고, 모자를 씌워준다. 맨발이 안 쓰러워 신발을 놓아주기도 한다.

소녀상이 서 있는 곳은 지난 1992년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

한 수요집회가 열리는 장소다. 2011년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한국성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조각가 김윤성·김서경 부부가 제작한 작품을 세우고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평화의 소녀상’은 경기도 화성시·수원시·성남시, 경남 거제시를 비롯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과 미시간주 사우스 필드에도 세워졌다. 대전은 올 3·1절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다. 시민추진위원회와 대정시가 1억여 원을 모았다.

광주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추진하는 이가 있다. 의경 북부

당시 수요집회를 보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든 조선대생 전경훈씨다. 지자체도, 사회단체도 아닌 ‘개인’이 모금 운동을 벌인다는 게 대단하다. 목표액은 5000만 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와디즈’(www.wadiz.kr)에 개설된 ‘소녀를 기억하는 방법. 위안부 소녀상 세우기 캠페인’ 등을 통해 한달여 동안 1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기부를 받아 1600만 원 정도를 모았다. 민주인권 도시 광주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고

세계를 향한 젊은이들의 도약, 광주유니버시아드



정평호 광주시 체육U대회지원국장

올해 광주 7월은 신명나는 젊음의 향연이다. 세계 170개국에서 1만5천여 명의 대학생들을 포함해 2만여 명이 함께 하는 지구촌의 젊은 축제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기 때문이다. 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활기 넘치는 계절에 우리 광주는 다시 한 번 세계인들과 가슴 뭉클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다.

김준태 시인은 광주를 “영원한 청춘의 도시”라고 말했다. 청년들의 뜨거운 심장 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도시가 바로 광주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인권·평화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도시 광주에서 열

리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한 편의 청춘 드라마가 될 것이다.

올해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전세계 대학생 올림픽 유니버시아드가 개최되는 그야말로 유사 이래 세계 속의 광주로도 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규모뿐만 아니라 기록면에서도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회로 호남에서 열리는 최대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광주라는 도시를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광주U대회는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인환경(Eco), 평화(Peace), 첨단기술(IT), 문화(Culture) 등 네가지 요소를 개최 이념으로 하여 UN과 공동으로 에픽스포럼(EPICS FORUM)과 유스리더십 프로그램(YLP)으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스포츠와 문화, 청년이 어우러져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도전을 키워주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되고 있다.

대회 개최 기반이 되는 경기장과 선수

촌은 공정률이 90%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안전대책 등 대회운영 전 분야에 걸쳐 손조롭게 준비 중이다. 특히,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대회’를 목표로 국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영장, 양궁장,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등 4개 경기장을 제외한 66개의 시설을 개·보수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실용적인 대회로 추진 중이다.

대회 기간 중 1만2800여명이 사용할 선수촌은 국제대회 사상 최초로 재건축 방식으로 건립하여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도심 공동화현상 방지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 등 부수적 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용평역 국립공원에서 2월말까지 열리는 빙설축제에 U대회 마스코트 ‘누리비’를 활용한 방등을 설치했으며 D-100일 서울시청앞 광장에 U대회 홍보탑을 설치할 기점으로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U대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U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

어 광주의 정신과 문화예술, 그리고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무대이며 지구촌 젊은이들이 만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가슴 벅찬 청춘의 한마당이 될 것이다.

광주에서는 U대회 기간 중 세계의 청년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청년 문화난장’을 준비 중이며, 이번 U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광주,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청년도시 광주’ 브랜드를 창출하여 유산으로 남기고자 한다.

대회를 위한 모든 절차는 차근차근 준비되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남은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다.

전 세계가 공감하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헌명한 지혜가 필수적이며 이는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광주를 찾는 국내·외 손님들에게 광주의 진정한 맛과 멋과 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150만 광주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광 고 매 케 링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그 램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